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 강 성 원

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대처할 방법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상품의 수입을 개방 하라고 아우성쳐 왔고, 지금도 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소리는 계속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수출위주 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마찰은 계속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운동화나 텔레비전 또는 자동차가 수출되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지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축산기반을 무너뜨리게 할 수입개방을 허용할 수 있느냐고 흥분한다.

어떤 산물이든지 아직 개방하지 않고 있는것, 그래서 개방요구가 빗발치는 것들은 거의 예외없이 그것을 개방했을 때 그 생산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거나 그와 비슷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들이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막대한 외화의 유출과 국내업계의 위축, 도산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공산품의 경우는 보호받고 있는 동안에 국제수준까지 기술축적을 하고 싶은데 상대가 기다려 주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른 방향에서도 생각이 가능하다. 서비스업은 우리도 외국 업체와 경쟁하면서 그 영역을 해외로 넓혀 갈 수 있으며 외화를벌어 들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공산품의 경우 다소 앞당긴 개방이 신속한 적응능력 즉 필사적인 생존투쟁을 통하여 발전을 앞당기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축산은 다르다. 경작 조건과 종축문제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토질, 토지형태, 기후 등으로서는 도저히 비교우위를 확보할 방법이 없으며 그 장애물들을 과학과 투자의 힘으로 개량해 나간다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종축을 개량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자금의 투여가 필요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중단없이 계속 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줄였다 늘렸다 한다거나, 그만 뒀다 다시 했다 하는 식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서비스업이나 공산품과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축산물을 놓고는 어떤 일이든 모험을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분명한 전망과 방향이 설정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 안될 것은

(1) 축산물은 오늘날 끊임없는 생산과잉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기복은 심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극히 적은 특정분야를 제외한 모든 축산인은 도산 직전 상태에서 허덕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은 끈질기게 계속될 것이며 우리 느낌으로는 우리 정부가 한없이 버틸 수만은 없을 것 같다.

(3) 결국 정부나 우리 축산인은 일부 수입개방을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서 대체로 사정은 명백해졌다.

(1) 축산은 그 성격상 살아 있는 경작기반과 종축개량이라는 면에서 단속(繼續)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

(2) 우리 축산은 그 자체로 생산과잉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어서 수입같은 것이 없어도 생존 그 자체가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수입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

이 모든 간단하고도 분명한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그 정책은 여러 갈래로 펼쳐지겠으나 다음 두가지 기본원칙이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 수급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먼저 정착 되어야 한다. 농민이 생산한 축산물이 생산과잉으로 남아 돌아 가격이 폭락되고 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아래서 축산물 수입문제를 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한국사람일 수는 없을 것이다. 생산과 공급을 수요에 맞추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수입도 공급의 일부로 간주하여 정부는 아무 장애없이 적절한 량을 계획에 따라 수입할 수 있을 것이다.

(2) 축산물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원가 절하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종합적인 축산발전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이 두가지 정책이 확고히 시행될 수만 있다면

(1) 한국의 축산업은 안정적 영위가 가능하며,

(2) 정부는 수입을 계획에 의거 할 수 있으며,

(3) 값싼 수입축산물 가격은 한국 축산인의 전진적 노력을 고양토록 촉매역을 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변할 수 있다.